



최형준씨가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의 무대 위에 올라 멋진 퍼포먼스와 함께 열창을 하고 있다.



지난 11일 열린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의 첫번째 무대에 올라 열창을 하고 있는 백영주씨.

# 추억 깃든 기타선율, 금요일 밤 감미롭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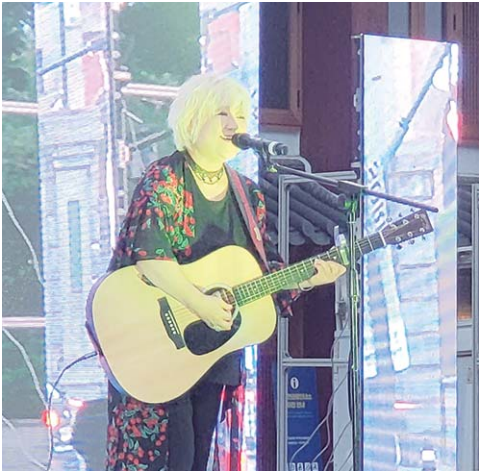
'별미소'로 유명한 노스탤지어의 멋진 무대.



사회를 맡은 '국민MC' 서정우씨.



인사말을 하고 있는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.



'난 바람, 난 눈물'이라는 곡으로 유명한 백미현씨의 감미로운 무대. 그는 가수 장호(사진 오른쪽)씨와 함께 무대를 장식했다.



무대 위에 올라 '축제' 등 히트곡을 부르고 있는 박영일씨.



무대 위에 올라 '술개', '허인아' 등을 부르고 있는 이태원씨. 그는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의 마지막을 장식했다.